

군산시, 전통시장에 활기 불어넣는다

‘전통시장 도약의 해’ 지정 ... 문화관광 연계 쇼핑 명소 육성 청년창업 활성화·야시장 개장 등 특색 있는 방안 마련 총력

군산 전통시장을 복원하는 시장으로 군산시가 올해를 ‘전통시장 도약의 해’로 정해 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쏟는다. 군산 구도심에 위치한 공설시장과 신영시장, 명산시장 등은 한때 지역 경제·문화·생활의 중심으로 서민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시장이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출현,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뜸해지면서 ‘장 보는 맛’이 사라진 시장

으로 전락했다. 군산시가 이들 전통시장을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쇼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신영시장의 경우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될 만큼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활기를 띠겠다는 구상이다. 군산시는 앞서 ‘다시열린 군산의 물결,

그리고 재보선장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이라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중심 시가지형 부문에 선정됐다. ‘...물결’ 사업에는 폐철도를 공원화해 근대역사지구 내 관광객을 전통시장 밀집 지역으로 유입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공설시장은 빈 점포를 청년몰 ‘물랑루즈201’로 조성, 청년 상인들의 창업을 이끌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10만여명의 방문객들을 끌어 모으는 성과를 냈다. 일부 입점 업체는 대형마트 계열사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군산시는 이 같은 점을 감안, 청년 몰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명산시장은 근대역사를 특화로 한 근대역사 체험시장과 야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짜겠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오는 2월 개장과 함께 ‘눈이 반짝, 임이 반짝 고운 야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야시장 중심 시장으로 만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를 전통시장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시장별 특색있는 활성화 전략을 마련,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지원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군산만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내장산, 아름다운 겨울왕국 변신

내장산이 은색 이불같은 흰 눈으로 뒤덮여 장관을 연출했다. 22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국립공원 내장산이 설국(雪國)으로 변했다. 일주문에서 내장사에 이르는 단풍터널은 눈꽃 터널로 단장했다. 단풍터널은 가을이면 일주문에서 내장사까지 108그루의 단풍나무가 터널을 이루는 관광 명소다. <정음시 제공>



고창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회 개최

홍보효과·시민 자발참여 유도

고창군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연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 환경시설사업소는 올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 우수

한 공동주택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기로 했다. 환경시설사업소는 지역 내 20세대 이상 연립·공동주택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기(RFID)를 설치하고 사용중인 34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대회를 실시한다. 사업소는 연립과 공동주택별로 세대당

배출량(50%),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률(40%), 청결도와 홍보(10%)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소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적은 최우수 공동주택 5개소에 대해서는 3주간 무상수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감량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

남원시 ‘명품농업대학’

내달 2일까지 입학생 모집

고품질 복숭아 재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음달 2일까지 ‘명품농업대학’ 입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것으로, 남원시는 복숭아를 비롯, 친환경농업, 농식품 분야 등으로 나눠 40명씩 120명을 선발한다. 복숭아반의 경우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를 시작으로 병해충, 생리장애 등 종합교육을 진행한다. 친환경농업반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기술을 소개하고 농식품반은 농식품가공 중 발효를 중심으로 한 실습을 체험할 수 있고 가공상품 생산·유통 교육도 진행한다. 전체 교육과정의 50%를 현장 실습으로 채워 이론 교육 대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을 보고 느껴보는 오감형 교육으로 진행한다는 게 남원시 설명이다. 제납된 지방세가 없는 남원시 농업인이나 농업에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빈집 철거비 주택당 250만원 지원

고창군이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 주택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박형진기자 phj@



원자력연구원, 차세대 반도체 광학기술 개발

(주)바이오엑츠와 업무 협약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조성물 실용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지난 10일 정음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주)바이오엑츠와 협약을 체결(사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조성물 제조 기술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연구원 박용대 박사팀은 체내에 투입된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β -amyloid)와 결합해 빛을 내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조성물을 개발, 국내 특허 등록 및 외국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정음=박성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광학 영상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신속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엑츠와 ▲알츠하이머 치매 및 암 진단 핵심기술 개발 및 실용화 ▲전문 인력 교류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기타 방사선 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병엽 소장은 “실용화가 완료되면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발견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방사선을 활용한 의료기술로 의료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음=박성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 내항 일대 근대항만역사관 조성

120억원 들여 2022년 완공 체험관·전시관·전망대 등

군산 내항 일대에 근대역사 상징성을 담아낼 근대항만역사관이 들어선다. 군산시는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근대항만역사관(조감도)을 오는 2022년까지 건립키로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근대항만역사관은 120억원을 들여 건립되며 항만·역사체험관, 교육·전시공간, 전망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역사관에는 항구의 변천 과정 등을 보는 전시관도 마련해 항만 역사와 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곳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게 군산시 구상이다. 군산시는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꾸며 지역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역사관을 중심으로 원도심 인근의 아간불거리와 체류형 시설을 연



계해 수변도시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산항은 지난 1899년 국내 6번째로 개항해 일제강점기 쌀 수출의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내항에는 근대 근간한 부산교를 비롯한 항만자원이 남아 있어 관광지 뿐 아니라 역사교육장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들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양층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담양군 창평 의항리 9544㎡ 공장등 적합 평당 45만원
- 신안군 압해읍 도촌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6600만원
- 순창 북이면 전 3천여평 포항 산 75780㎡ 4억
- 함평읍 물머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각적적합 5억

상가건물

- 고흥군 통일면 판선 땅 7061㎡ 판선 267㎡ 8억2천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건물 247㎡ 1층 가게, 2층 투룸, 3층 인접, 은행 1억5천 생활편리 5억7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물 1164㎡ 12억5천
-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 564㎡ 건물 596㎡ 보증금 5천에 월6000원 13억2천
- 월산동 버스도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물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영암 월출산 밑 판선 땅 1578㎡ 경관좋은 4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 시우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대지 14세대 328㎡ 3억5천

금대

-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7천
- 무안군 창계면 산 16166㎡ 공사가 5억5400 매도 2억8천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천
- 장성 백암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좋은 2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127 건물 297 건물 10억천 은행 6억 교환가능 7억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헌전, 농성초교옆문앞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 - 4200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팟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14억

문의 H.010-3605-5000

토지구합

1.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도곡온천 가는길 좌 우측 도로변 토지
2. 화순읍 신기리 만연사 가는길 또는 화순읍 유천리 전대병원 가는길 좌 우측 도로변 토지 약 2,000㎡ 내외

H. 010-3162-4989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이장현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98/9 Fax. 02-2029-6404
광주 : 광주광역시 광안구 학남신당앞로 45(창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